

불문학도가 체코에서 영어, 프랑스어, 체코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제목	불문학도가 체코에서 영어, 프랑스어, 체코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주제	체코로의 교환학생 이야기(미래에셋합격부터 현지 생활, 여행, 총 비용까지)



그림 1 남보헤미아대학교 캠퍼스

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를 체코 체스케부데요비체에 있는 남보헤미아 대학교에서 보낸 불어불문학과 18학번 김**이라고 합니다. 체코로의 교환학생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미래에셋장학생에 선발된 내용부터 불어불문학과 학생이 프랑스가 아닌 체코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체코어를 배운 것과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 그리고 교환학생 총 비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불문학과 학생이 프랑스나 벨기에가 아닌 체코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불문학과니까 당연히 프랑스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많고 많은 유럽 국가 중 체코를 선택했는지를 먼저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환학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언어의 성장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언어 관련 학과를 다니니 그 부분도 교환학생으로 갈 나라를 정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성장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만날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저의 꿈인 기자의 자질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 물가, 즉 돈이 얼마나 들지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의 자립심을 온전히 기르기 위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지금까지 알바를 하며 모아온 돈과 장학금으로 가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할 고려 조건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중에서도 물가가 비싼 편이기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 아쉽게도 제외

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체코의 남보헤미아 대학교를 알게 되었는데, 이 대학교에도 수준 높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니는 불어불문학과가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고 싶던 저에게 큰 끌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토익 830+(남보헤미아대학교 기준)의 점수를 만들어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보고, 비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환학생을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체코에서 교환학생을 위해 예상 금액으로 비자, 비행기, 기숙사비, 용돈, 식비, 여행 경비 등을 예상하여 1000만원 +a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면제와 더불어 유럽/미주 250만원, 아시아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셈듀오 장학금이나 미래에셋장학금과 같은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저와 미래에셋장학금과의 조건이 맞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시, 미주/유럽/기타는 700만원, 아시아는 500만원(한학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AI 역량 면접을 보게 되는데,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만큼 경쟁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미래에셋장학생에 선발되었는데,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팁을 조금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매 기수별로 달라지니 여러 합격 후기를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26기 자기소개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장과정을 토대로 본인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기재해주세요.
2.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와 본인이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에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해주세요.
3. 교환학생 파견국가의 사회,경제,정치,문화 이슈 중 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기재해주세요.
4. 교환학생 기간 중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저는 자소서를 쓰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바로 '일관성'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4가지로 나누어지고 질문 내용이 다 다른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을 빼고 읽었을 때 하나의 글로 읽히게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의 꿈과 연관시켜 4가지 질문을 연결했습니다!

1. 성격과 가치관의 경우 '책임감' '노력'이라는 키워드를 정해 기자라는 꿈과 연관시켰고,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된 계기 또한 꿈의 직업인 기자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2. 미래에셋 장학생에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의 상황을 어필하였습니다. 무작정 돈이 절실하다는 것을 때를 쓰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장학금이 왜 필요하고 교환학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불문학과임에도 체코를 선택한 이유를 함께 녹여냈습니다.)

3. 파견국가의 이슈는 평소 관심있게 보았던 체코의 '벨벳혁명'과 우리나라 5·18혁명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언론의 현주소를 살펴보며 기자라는 저의 꿈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목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작성했어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려 노력했고, 저는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과 같은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여러 정보를 나누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을 어필했는데 이것 또한 저의 꿈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림 2 남보헤미아대학교 캠퍼스

다음으로는 체코에서의 현지 학교에서의 생활 팁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체스케부데요비체는 체코 수도인 프라하에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2시간 거리이며, 블타바강의 연안에 위치합니다. 프라하 외의 필수 여행지라고 불리는 체스키크룸로프와 불과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남보헤미아주의 주도인 이 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브랜드인 버드와이저(Budweiser)의 생산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축제도 자주 열리고 맥주를 사랑하는 여행자들에게 필수적인 여행 코스로 불립니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와 지역에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숙박, 식비 등 대부분의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저렴했습니다. 특히 제가 머문 체스케부데요비체는 프라하보다도 저렴한 물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매우 절약할 수 있었고, 여행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이나 서머타임이 3월 마지막 주 일요일~10월 마지막 주로 그 시기에만 7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프라하는 관광 도시로 발달하여있어 영어가 잘 통하는 편이었으나, 체스케부데요비체는 젊은 층이 아니면 대부분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역기나 몇몇 단어만 알고 있으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전압은 230V로 한국과는 다르지만, 한국 콘센트가 작동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장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행용 멀티 어댑터를 구매해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그와 함께 한국 멀티탭 하나를 챙겨 가서 한국 제품 특히 전기요를 요긴하게 썼습니다. 만약 겨울에 떠나신다면 가벼운 전기요를 챙겨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보다 추운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난방하므로 매우 춥게 느껴졌습니다. 체코 프라하 공항에 도착해서 체스케부데요비체까지 가는 길이 처음에는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단기간 유심을 사 오셔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전까지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체코에는 보다폰이라는 통신사가 가장 유명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할인을 해줍니다.

여권과 ISIC(국제학생증) 카드를 챙겨 가면 되고 무제한 요금제 한 달에 599코루나(한화 약 34,000원) 한 달 15기가 제공하는 요금제는 499코루나(한화 약 28,000원)이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스위스, 터키 제외)에서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요금 납부는 ATM이나 인터넷, 매장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ATM으로 납부했습니다.

체코는 코루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로는 많이 환전해서 가져가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카드가 되고 (마스터, 비자 등) 카드 수수료는 조금 비싸지만, ATM 출금 수수료는 아주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ATM에서 뽑으면 안 됩니다. 저는 실수로 아무런 기기에서 만원을 뽑았다가 수수료도 만 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기기는 KB BANK입니다. 하나카드로 11만 2,000원을 인출했고, 1,500원 정도를 수수료로 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할 때도 저렴한 ATM기를 찾아서 돈을 뽑았고, 대부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환학생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불어불문학과지만 프랑코포니(불어권)가 아닌 체코로 떠났습니다. 저는 총 4개의 수업을 들었는데, 불문과 수업 2개(생활 프랑스어, 프랑스 문학2)와 영어 수업 한 개(Intercultural을 주제로 한 토론식 수업)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초급 체코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세 언어는 매우 닮은 듯 다른 언어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불어 수업은 원어민 교수님이 불어로 수업을 하시고, 학생들도 불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준이 너무 높아 힘들었지만, 교수님과 과 친구들의 배려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수업도 친절한 교수님 덕분에 무난하게 보냈고,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체코어 수업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고 싶은 저에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불어와 비슷한 점, 다른 점들을 살펴보며 더 집중해서 공부했고 70점 만점에 69.5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 3 체스케부데요비체 광장

제가 직접 겪어본 체스케부데요비체는 매우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프라하, 체스키크룸로프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붐비고 시

끄러운 도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린츠와 기차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국가로의 여행도 용이했습니다. 주말에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체스케부데요비체 광장의 모습입니다. 광장에서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거닐기도 하고, 근처에 식당과 카페가 많아 자주 들렸던 곳입니다. 잘 알려진 체코의 도시가 아니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기 전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될 만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프라하와도 먼 거리가 아니라 바츨라프 국제공항을 통해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큰 마트도 많고 다른 도시와의 교통편도 잘 갖추어져 있어 매우 추천하는 도시입니다. 물론 한국인이 거의 없지만(교환학생을 하는 1학기 동안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환학생 친구들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고, 한국어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언어도 늘 수 있었습니다.



그림 4 친구들과 헝가리 여행 중

또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남보헤미아 대학교의 교환학생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에 잘되어있는 편입니다. 또한 전남대와 마찬가지로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버디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특히 수업에서 만난 과 친구와 많이 친해졌는데, 제가 매우 내향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 친구, 체코인 친구와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실 교환학생 총비용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환학생 1학기 5개월 동안 총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왕복 비행기 100만원, 비자 발급 65만원, 생활비 400만원(기숙사비 15만원/달 포함)을 사용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100만원정도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비용으로 총 530만원(비행기, 숙박, 식비, 기념품)을 지출했습니다.



그림 5 벨기에 브뤼헤



그림 6 영국 런던

여행은 학기 중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프랑스를 다녀왔고 학기가 끝난 후 1달 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영국, 스페인, 덴마크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라이언에어나 부엘링 항공 등 저가 항공사 위주로 교통수단을 선택했고, 가까운 나라는 기차와 플릭스 버스, 레지오젯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ISIC(국제학생증)을 소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발급해서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숙소는 에어비앤비, 호스텔을 예약하여 매우 절약하였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문화를 경험하며 저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유럽에 가게 된다면 더욱 다양한 국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여행하기에 최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불문학과임에도 체코로 가는 등 조금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매우 좋은 추억과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이렇게 도전한 끝에 또 다른 행운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